

반복되는 침수에 복구 신안교 주민들 뿔났다

서방천 범람 예방 목적 차수벽 설치...배수 방해·피해 키워 민·형사 소송 예고...강 시장 '시스템 개선·철거' 종합검토

광주 북구 신안교 인근 주민들이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서방천 범람을 막기 위해 설치한 차수벽을 지목했다.

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한 예방 시설이 오히려 저지대 주택가의 배수를 방해, 신안교 주택가 일대의 침수의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4일 신안교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주민들은 수해대책위원회(대책위)를 구성하고 폭우 피해 책임을 묻기 위해 광주 시 등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이곳 주민들은 지난달 17일과 지난 3일 폭우로 입은 피해가 서방천 일부 구간에 설치된 1.5m 높이의 차수벽 때문이라 주장한다. 이번 수해를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해당 차수벽은 광주시가 지난 2019~2023년 신안동 신안교부터 임동 광주천 합류부까지 일부 구간에 세운 침수 예방 시설이다. 서방천 생태 회복과 함께 여름철 폭우로 인해 불어날 염려가 있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함이다.

전날 내린 비로 인해 밤을 새우며 이웃들을 대피시킨 신안동 자율방범대 소속 윤성오씨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신안교 일대에 물이 차기 시작해 30분 만에 침수됐다"며 "차수벽 높이가 낮았다면 물이 서방천으로 흘러 들어가 침수 피해가 훨씬 줄어들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 17일 침수 피해를 겪은 뒤 같은 피해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돼 광주시에 차수벽을 부수거나 투명한 벽면이라도 해체해 달라 요구했다"며 "그러나 행정에서 주민의 요구를 듣지 않았고, 또다시 이러한 참사가 반복됐다"고 덧붙였다.

인근에서 르노자동차 서비스코너를 운영 중인 박찬희 대표는 "차수벽이 완성되기 전인 2020년 극한 호우 때보다 올해 여름집야 20cm 이상 빗물이 더 차올랐다"며 "이는 침수 피해가 커진 원인이 차수벽이라는 것을 방증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난달 침수 피해로 자동차 수리장비를 새롭게 교체했는데, 보름 만에 또 다시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주민들 또한 장판, 도배 등 피해 복구가 완벽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침수 피해를 맞으니



4일 전남 함평군 함평천전통시장에서 상인들이 수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허탈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신안교 일원 차수벽을 두고 철거할지, 시스템을 개선할지 여부에 대한 종합검토에 나섰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출입기자 상담회를 통해 "5년 전 서방천 범람을 막기 위해 130억원을 들여 물막이 옹벽시설을 설치했다"면서 "그러나 올해는 반대로 물이

빠지지 않아 침수 피해가 컸고, 전날에도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따라서 수해 방지를 위한 종합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천에서 마을로 들어오는 물을 차단하는 대신, 도로에서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건지, 아니면 차수벽 자체를 드러내야 하는 것인지 여

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방천과 용봉천이 만나는 지점에서 24m 관로와 12m 관로가 충돌하다 보니 신안동 전남대 치과병원 앞쪽과 전남대 정문 쪽은 반복적으로 침수되고 있다"면서 "이 부분을 우선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우르르 광황' 광주 낙뢰 317회 관측

지난해 8월 총 횡수 255회 뛰어 넘어

3일 광주·전남 지역에 강한 폭우와 함께 내리친 낙뢰가 1642회에 달하는 것으로 관측됐다.

4일 광주지방기상청 등에 따르면 전남 하루 동안 광주 317회, 전남 1325회 등 총 1642회의 낙뢰가 내리쳤다.

이는 지난해 8월 광주의 낙뢰 횡수가 255회인 점을 감안하면 하루 만에 한 달 치를 뛰어넘은 것이다. 지난해 광주의 연간 낙뢰 횡수는 673회였다.

자치구별로는 광산구가 211회로 가장 많았고, 북구 55회, 서구 27회, 남구·동구 각 12회로 집계됐다.

전남지역의 이달 낙뢰는 지난해 8월(6505회)의 20%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기록적 폭우가 내린 무안지역이 276회, 신안 245회, 나주 163회, 함평 148회, 곡성 111회의 낙뢰가 쳤다.

기상청은 지표면의 뜨거운 공기로 생긴 상승기류와 한반도 인근에 머물던 태풍에서 유입된 수증기, 대기 불안정이 낙뢰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기상청은 낙뢰가 잦을 때는 실내로 대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당부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광주·전남 시간당 142mm...극한 폭우 이유는?

8호 태풍 '피마이' 영향...다량 수증기 유입 원인

3일 광주·전남 지역에 내린 극한 호우는 '제8호 태풍 피마이'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4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전남 무안공항의 1시간 최대 강수는 142.1mm를 기록했다. 또 무안 운남(110.5mm), 광주 광산(89.5mm), 담양 봉산(89mm), 흑산도(87.9mm), 함평 월야(87.5mm), 광주(74.8mm) 등에도 강한 비가 관측됐다.

흑산도는 2024년 7월16일 79.7mm 이후 1년 만에 1시간 최대 강수 기록을 새로 썼다. 이중 시우량이 가장 강했던 무안공항 지점의 경우 1998년 전남 순천시 주암지점에서 시간당 145mm를 기록한 역대 최고

기록과 근사한 수치로, 200년에 한 번 내릴법한 역대급 폭우로 기상청은 분석했다. 다만 무안공항 지점은 기상관측 목적으로 설치된 곳이 아니어서 공식 기록으로 인정하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기상청의 설명이다.

이처럼 강한 비가 내린 것은 제8호 태풍 피마이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피마이는 지난달 31일 중국 남부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했는데 완전히 소멸하지 않고 저기압의 형태로 서해상으로 접근했다.

이 영향으로 한반도 주변에 중규모 저기압이 여럿 발달하면서 한반도에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됐고, 이후 북쪽의 찬 공기와 만나 강한 비구름대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은 예년보다 1~3도 높은 서해상 해수면 온도 등으로 수증기량이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강풍대가 형성되는 저기압의 전면에 위치한 탓에 강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그동안 폭염정보 수준의 무더운 날씨가 연일 이어진 탓에 대기가 품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많아진 상태였는데 좁고 강한 비구름대가 형성돼 극한호우가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달 17~19일 광주·전남 지역에 내린 폭우도 높은 기온에 따른 '수증기'의 영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오늘 또 폭우...최대 40mm 소나기

5일 광주·전남지역에 최대 40mm의 비가 내리겠다.

4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5일 광주·전남지역은 고온 다습한 공기와 차고 건조한 북쪽 공기가 만나면서 형성된 강수대가 남하하면서 대체로 흐린 가운데 천둥·번개를 동반한 최대 40mm 소나기가 내리겠다.

이후 강수대의 정체 가능성 등으로 6일 또다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

예상 강수량은 5~40mm다.

비가 내리는 동안 폭염특보가 해제될 수 있으나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습도가 높아져 폭염특보가 발효될 것이다. 4일 오전 11시 기준 광주·전남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호우 피해' 무안·함평 초중고 방학 프로그램 중단

전남도교육청은 집중호우가 내린 무안·함평 초중고교의 학사일정을 조정하고 일부 학교를 대피소로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호우 피해가 발생한 무안·

함평 관내 모든 학교에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 중단 등 학사일정을 조정하도록 통보했다.

또 각 학교와 실시간 연락 체계를 통해 강우량 변화와 피해 발생 여부를 살펴

며 학교시설 피해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 체제를 가동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학생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집중호우 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집중호우가 지속될 경우에는 추가 휴업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su@gwangnam.co.kr

SOCIETY

2025년 8월 5일 화요일

오늘의 날씨

☀️ 예보 05:44 🌧️ 당분 16:45
☀️ 예보 19:32 🌧️ 당분 01:12

서울	24~33	강릉	25~32
대전	26~33	대구	26~35
전주	27~34	부산	27~33
제주	28~33	광주	26~34
		목포	27~32
		여수	27~33
		순천	25~34
		구례	26~35
		광주	27~33
		임도	27~34
		흑산도	26~32
		고흥	26~34
		진도	26~32

목포	미물(고)	10:11 / 23:50
	샘물(저)	05:16 / 16:21
여수	미물(고)	05:45 / 19:21
	샘물(저)	00:47 / 11:49

사랑의 집수리 봉사단 모집

미네편 ○·광주 북구가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사랑의 집수리 봉사단을 긴급 모집.

북구 1365자원봉사포털에는 오는 14일까지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사랑의 집수리 봉사단을 모집한다는 공고문이 올라와.

공고문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 침수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침수 주택 도배, 장판 교체, 전수 집 정리, 폐기물 정리, 작업 보조 등의 업무가 부여될 예정.

활동 장소는 건국동, 석곡동, 신안동, 용봉동, 운암동 등 침수 주택 200여개소이며, 시간은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복구는 주택별로 일정 조율 후 자원봉사자에게 개별 연락할 예정. 자원봉사자 69명(4일 오후 2시 기준)이 피해 복구 봉사활동을 신청. 이산하 기자

잦은 폭우...전남지역 산사태 위험 키웠다

최근 5년간 114ha 피해...지자체 대응 강화 필요

전남 산사태 위험지역의 전체 면적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의 대응 강화가 요구된다.

4일 산림청 산사태 위험등급 통계(2025년 4월 기준)에 따르면 1등급 면적은 전국 17곳 시도 중 강원이 15만 8585ha로 가장 넓었고, 경북 11만5303ha, 전남 5만8677ha, 충북 5만3074ha 순이었다.

2등급 면적은 강원이 27만3626ha로 가장 넓었고, 경북 24만3207ha, 전남 12만1077ha, 경남 11만6953ha 등으로 확인

됐다.

다만 광주는 산사태 위험 면적이 적은 편이었다. 광주의 1등급 면적은 902ha로 제주(72ha), 인천(621ha) 다음으로 적었다. 광주의 2등급 면적은 2444ha로 제주(121ha), 서울(1569ha), 인천(1778ha) 다음이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광주·전남의 산사태 피해 면적은 총 127.42ha(광주 13.21ha·전남 114.21ha)였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11.42ha(광주 13.21ha·전남 98.21ha), 2021년 8ha

(전남 8ha), 2023년 5ha(전남 5ha), 2024년 3ha(전남 3ha)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 2021년 7월6일 광양시 진상면 비평리 한 마을 동산의 흙·석축이 경사면을 따라 주택을 덮치면서 80대 여성 1명이 숨졌다.

2020년 8월7일에는 곡성군 오산면 한 마을 아산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주택 5채를 덮쳐 매몰된 주민 5명이 숨졌다.

산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강하고 많은 비의 영향이 크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라 극지성 집중호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전국 시간당 강수량 50mm 이상 폭우가 내린 횡수가 1970년대 7.1회에서 2000년대 18.0회로 30년간 2.5배 이상 증가했



산사태 취약지역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산사태(토석류 포함)로 인해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산림 보호법에 따라 2012년 8월부터 지정·고시한 지역이다. 최근 3년간 전국 산사태 취약지역

(2022~2024년)은 2만7400개소, 2만 8988개소, 지난해 3만1345개소로 파악됐다.

전남의 산사태 취약지역 수는 2022년 2262개소에서 2023년 2196개소로 줄었지만 지난해 2278개소로 늘었다. 같은 기간 광주는 99개소, 113개소, 113개소였다.

전문가들은 산사태 발생 위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토석·나무 등의 유출을 방지하는 사방사업 등을 제안했다.

국립산림과학원 관계자는 "산지 주변 개발·훼손 면적이 증가해, 산사태 피해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산사태가 일어났던 곳에 대해서는 수로 만들기, 산돌쌓기 등 사방공사를 진행하고 산사태에 경보 시스템·위험지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동구, LED 전자계시대 설치

광주 동구가 전남대학교병원 앞 요거리 에 LED 전자계시대를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된 전자계시대는 높이 6m, 표시 면적 12㎡로, 선명한 색상과 우수한 시인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전자계시대는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며, 총 50구좌 기준으로 1구좌당 하루 약 54회 송출된다.

광고는 1회당 20초간 정지화면으로 표출되며 광고 비용은 10월 기준 3만9000원, 30일 기준 10만5000원이다. 광고 대상은 전통시장,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구청 방문 또는 전화(도시공공계획과 광고물관리팀 062-608-2886)로 문의하면 된다.

임택 청장은 "이번 전자계시대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홍보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